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2011. 4

통일정세분석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2011. 4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 론	1
II. 2010년 경제부문의 성과와 2011년 주요 정책 과제	2
1. 2010년 경제부문의 주요 성과	2
2. 2011년 주요 정책 과제	3
III. 국가예산의 2010년 결산 및 2011년 계획 분석	6
1. 2010년 예산집행 실적	6
2.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	7
IV. 조직 인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	12
1.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출 무산	12
2. 리명수의 인민보안부장 임명	13
3. 당대표자회 이후 ‘당적 지도 강화’를 반영	14
V.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16
1. 종합 평가	16
2. 향후 전망	17
부록	20

표 목 차

<표 1>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6
<표 2> 북한의 국가예산 추계	8
<표 3> 예산 수입계획 부문별 증가율	8
<표 4> 예산 지출계획 부문별 증가율	10
<표 5> 국방위원회 위원 변화	15

I. 서론

- 북한은 2011년 4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를 진행함.
 - 본 회의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었음.

- 회의에서는 3가지 안건이 토의되었음.
 - ①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 ② 201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1년 국가예산
 - ③ 조직문제

- 회의 결과 김정은에게 새로운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김정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큰 주목을 끌만한 결정은 없었음.
 - 회의기간 중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을 대동하여 자강도를 현지 지도 한 것으로 보도됨.

- 본 보고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내용이 북한의 경제정책과 정치 환경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함.
 - 2011년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경제분야의 주요 과제와 예산 편성 내용을 통해서 올해 경제정책의 특징과 추진 방향을 평가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정치적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함.

II. 2010년 경제부문의 성과와 2011년 주요 정책 과제

1. 2010년 경제부문의 주요 성과

- 북한은 지난 해 경제부문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할애한 분량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0년 경제부문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실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함.
 - 중요 금속공장에서 ‘주체철’ 생산체계가 성과적으로 완성되었고 대규모 화학공업기지의 현대화를 통해서 ‘주체섬유’와 ‘주체비료’가 양산되었으며 석탄생산 능력의 증강과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발전능력 증대를 성과로 선전함.
 - 그러나 2010년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생산증대 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북한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인민경제의 주체화’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도의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는 경공업발전과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중요한 성과로 강조함.
 -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토대 마련’을 중요한 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북한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정책적 강조와 집행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성과를 제시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CNC화가 진척되고 과학자·기술자들이 최첨단기술인 핵융합에 성공하였으며 첨단기술제품의 개발과 생물공학발전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함.
 - 북한은 최근 각 분야에 대한 CNC화를 첨단과학기술 도입의 성공적인 사례로 강조하고 있는 바,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으나 CNC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2011년 주요 정책 과제

가. 경제 전반의 정책 목표

- 최영림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서 2011년 경제분야의 정책목표로 ‘인민생활의 향상’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제시함.
 - 특히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인민소비품’ 생산의 획기적인 증대와 ‘알곡’ 생산목표의 달성을 강조함.
- 이와 함께 올해를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만들자면서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함.
-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공업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추상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국가차원

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나.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 북한은 올해 식량생산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축산과 과수 및 수산부분의 생산 증대를 제시함.
 - “내각에서는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농사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역설함.
 - 예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은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과 과일, 식량생산을 동시에 증가시키자고 강조한 점임.
 - 또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수산부분의 역할도 새롭게 강조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양어업, 세소어업, 바다가양식”의 대대적 전개와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강조됨.

- 공업부문에서 4대 선행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예년과 비교할 때 특별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석탄생산의 획기적으로 증대와 석탄 생산능력의 계획적인 증강을 제시함.
 -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송변전체계를 합리화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함께 희천발전소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대규모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을 촉구함.

-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 생산체계와 방법’을 공고·발전시킬 것을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중량화와 현대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함.
 -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유색금속제품의 생산 능력 증대를 강조함.
 - 기계공업부문에서는 CNC화의 확산과 발전설비 및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의 생산을 역설함.
 - 전자공업부문에서는 각종 전자부품과 전자제품 생산을 증가시킬 것과, 정보산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을 강조함.
- 기타 부문에서는 주요 건설목표의 조기달성을 특별히 강조함.
- 건설부문에서 ‘홍남가스화대상’, ‘단천항’, ‘태권도성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을 비롯한 중요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주문함.
 - 이밖에 국토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사업에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
 -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정보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강조함.
- 이밖에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자고 강조한 부분은 새로운 점이 없으나 경제기술협력사업의 확대를 강조한 부분은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주의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기술협조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역설함.

Ⅲ. 국가예산의 2010년 결산 및 2011년 계획 분석

1. 2010년 예산집행 실적

- 내각 부총리 겸 재정장인 박수길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예산에서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3% 증가하여 전년 대비 7.7% 증가함.
- 국가예산의 지출은 당초 계획의 99.9%를 집행하여 전년 대비 8.2% 증가함.
 -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0.9%와 9.4%가 증가함.
 -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은 12.9%,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은 8.1% 증가함
 - 이밖에 ‘인민적시책’을 위한 자금지출은 6% 증가함.
 - 또한 국가예산 지출총액에서 15.8%가 국방비로 사용됨.

<표 1>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연도	예 산*		결 산**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9	105.2	107.0	101.7 (107.0)	99.8
2010	106.3	108.3	101.3 (107.7)	99.9
2011	107.5	108.9	-	-

주: *: 예산의 수입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

** : 결산의 수입·지출은 계획대비 달성율,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2010년 결산예산을 증가율에 따라 추정하면, 구화폐 기준으로 수입은 5,288억 북한원이고, 지출은 5,213억 북한원임.
 - 따라서 2010년 북한의 재정흑자 규모는 75억 북한원으로 추계됨.

2.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

- 북한이 발표한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으로 두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경공업 발전과 농업생산의 증대
 - 경제건설 전반의 활성화
 - 최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 2011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임.
 - 예산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7.5% 증가시키고, 지출계획은 8.9% 증액하였음.
 - 이를 결산 규모와 구화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1년 북한의 예산 규모는 수입 5,684억 북한원, 지출 5,677억 북한원으로 추산됨.

<표 2> 북한의 국가예산 추계

(단위: 억 북한원)

연도	예 산		결 산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재정수지
2009	4,828	4,828	4,910	4,818	92
2010	5,219	5,218	5,288	5,213	75
2011	5,685	5,677	-	-	-

출처: 북한의 각 연도 예·결산 관련 발표 내용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구화폐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 북한이 발표한 국가의 예산수입 계획에 따르면,
 -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은 각각 83.9%와 16.1%로 구성되며,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국가예산수입총액의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난해에 비해 ‘협동단체이득금’은 3.8%,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1.4%,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0.7%, ‘사회보험료’ 수입은 0.4%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함.

<표 3> 예산 수입계획 부문별 증가율

(단위: %)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보험료	기타
2009	5.8	3.1	6.1	3.6	1.6	-
2010	7.7	4.2	2.5	2.0	1.9	-
2011	-	3.8	1.4	0.7	0.4	-

출처: 북한의 각 연도 예·결산 관련 발표 내용

- 2011년 북한의 국가예산 특징은 국가예산부문에서 78.5%를 차지한다고 강조한 ‘국가기업이득금’의 증가율을 밝히지 않은 부분임.
 -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점과 협동단체이익금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의 예산 수입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게 책정된 사실을 고려할 경우, ‘국가기업이득금’의 증가율이 전년 증가율(7.7%)보다 큰 폭으로 높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국가기업이득금’의 증가율을 이처럼 높게 책정한 점은 올해 국영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의 예산지출 계획에서는,
 -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2.9% 증액하고
 -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9% 확대하여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3.5% 확대함.
 - 또한 기본건설자금 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5.1%로 늘리며, 과학기술발전자금을 10.1% 증액함.

<표 4> 예산 지출계획 부문별 증가율

(단위: %)

		2009	2010	2011
인민경제사업비	농업	6.9	9.4	9.0
	경공업	5.6	10.1	12.9
	4대 선행부문	8.7	7.3	13.5
	과학기술	8.0	8.5	10.1
	기본건설	11.5	-	15.1
인민적시책비		-	6.2	-

- 이번 예산 지출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건설 부문으로, 기본건설에 대한 자금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5.1%로 증액함.
 - 이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건설사업에 국가적 우선순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의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상징하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1% 증액하면서 그 이유를 “과학기술부문에서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공업부문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인민적시책비 지출계획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문화건설부문과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에 많은 자금을 돌린다”는 정도로 처리함.
- 국방비의 비중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8%를 유지하고 있음.

IV. 조직 인사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진출 무산

-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최대 관심은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선출 여부였으나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음.
 - 외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 지도부가 의도한 김정은의 핵심보직 추가 장악 시점이 당초부터 이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으나, 만약 의도했지만 연기 또는 무산되었다면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음.

- 첫째, 김정은의 빠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 장악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것임.
 - 화폐개혁 실패와 식량사정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남북관계 긴장 등 대내외 여건이 김정은 부상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님.
 - 특히 김정은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불만 요인임.
 -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를 경우 무분별한 인사와 정책오류 등으로 군부를 장악하기 보다는 군부 내에서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후계자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음.
 - 차라리 군부와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후계수업과 이미지 확보, 업적 창출에 더욱 주력하려는 의도

- 둘째, 김정일의 권력누수를 막기 위한 것임.
 - 작년 9월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으나 상징성이 강한 당중앙군사 위 부위원장과 달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제2인자로서 실질적인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로서 권력이 김정은에게 집중될 수 있음.
- 셋째,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진출이 무산된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이 제1부위원장이 될 경우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음.
 - 실제로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건강이상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2. 리명수의 인민보안부장 임명

- 리명수의 인민보안부장 임명은 체제안정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최측근을 발탁한 것으로 평가됨.
- 중동의 자스민 혁명에 민감한 상황에서 최근 식량난의 악화로 탈북 사태가 급증하고 체제일탈 현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임.
 - 군 작전국장 출신을 민간 치안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작전’하듯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공포 통치’를 예고함.
 - 전임 주상성의 해임은 체제단속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그를 해임한 것은 체제일탈사건의 발생 등 실책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음.

- 공안분야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에서 권력층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리명수를 발탁한 것일 수도 있음.
- 장성택 견제 등 권력갈등으로 보는 것은 근거 없음.

3. 당대표자회 이후 ‘당적 지도 강화’를 반영

-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 권력은 당으로 이관되는 양상이며 국방위원회의 정책결정도 당적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임.
 - 당정치국, 비서국이 기능을 복원한 것은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건강이상 이후 발생한 권력의 공백기를 당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국방위원회의 제1부위원장을 공식으로 놔두고 이영호 등 군 최고 실세들을 국방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정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보다는 당적 지도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 당 기능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정치국이나 비서국 회의가 소집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당의 위상강화와 국방위원회의 약화는 김정은 후견세력인 장성택과 김경희의 입지 강화를 의미함.
 -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의 발탁과 같이 군수공업부장 전병호가 물러난 자리를 박도춘이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

<표 5> 국방위원회 위원 변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명단 (2009. 4. 9)	제12기 4차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명단 (2011. 4. 8)
위원장	김정일(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총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
1부위원장	조명록(총정치국장)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인민군 차수) 오극렬(당 작전부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인민군 차수) 오극렬*
위원	전병호(당 군수공업부장) 김일철(인민무력부 1부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주상성(인민보안상)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주규창(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당 군수공업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이명수(인민보안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주규창(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 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정찰총국으로 통합되어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맡음.

V.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1. 종합 평가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책 과제나 예·결산 내용에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시사할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음.
 - 다만, 2012년이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 북한의 경제정책 핵심 목표는 지난해에 이어 경공업발전과 농업생산 증가를 통한 주민생활 향상으로 설정됨.
 - 이를 위해서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새로운 실천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예산편성 계획에서 나타난 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국가적 과제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위한 중점사업이 3가지 부문으로 나타남.
 - 첫째, 일반주민들의 경제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실질적인 향상
 - 둘째, 정치적 실적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사업과 같은 중요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

- 셋째,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 핵심부분이면서 경제강성대국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CNC화 등)의 발전
- 대외경제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고 ‘수출액’ 증가를 강조함으로써 외화획득 증대가 일차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증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강구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대외경제 기술협력을 강조한 점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정치적 특징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체제안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21세기의 새로운 연대들도 로속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 김정일은 권력누수 현상을 우려하여 철저히 체제단속 의지를 드러냄.

2. 향후 전망

-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정은과 함께 자강도지역의 공장과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됨.
 - 4월 7일에는 ‘자강도제련소’와 ‘압록강다이야(타이어)공장’을, 4월 8일에는 ‘강계뜨락또르(트랙터)종합공장’을, 4월 9일에는 ‘2월제강종합기업소’와 ‘자강기계공장’, 그리고 ‘2.8기계종합공장’ 등을 방문함.

- 이는 지도부의 ‘경제대국 건설’과 그를 위한 공장과 기업 생산활동의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김정일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지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북한당국은 경제강국 건설을 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식량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전사회적 지원운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되어 계획경제체제의 순환고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과시하기 위한 CNC화 도입작업의 확대와 실험용 경수로 건설, 그리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같은 기념비적인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위한 노력동원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북한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원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환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올해 북한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2011년 북한은 내부적으로 ‘수출제일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대외적 경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기술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중심의 체제안정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내부 통제가 강화될 것임.
 -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부 사조 유입을 경계할 것임.
 - 특히, 우리의 전단 살포 등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것임.
-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은 안정적이며 공안과 대남 분야에서 정책적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김정일의 권력누수를 우려하여 당분간 인사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력을 김정은에게 이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 자신이 김일성에게 권력을 받은 후 김일성을 홀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권력을 붙들고 있으려 할 것임.
 -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 상황에 따라 인민군최고사령관 취임 20돌이 되는 금년 12월 24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에 오르거나 내년 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은 있음.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9(2010)년 사업정형과 주체100(2011)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9(201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0(201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내각총리인 최영림대 의원은 첫째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고 경공업발전과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발전과 문화건설분야 등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며 경제부문전반에서 생산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계속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과업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인 박수길대의원은 둘째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이 101.3%로 넘쳐수행되고 국가예산지출이 99.9%로 집행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이 전해에 비하여 각각 107.7%, 108.2%로 늘어난데 대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전해에 비하여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10.9%,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9.4%,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8%, 기본건설자금지출을 112.9%,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을 108.1%, 인민적시책자금지출을 106%로 늘이였으며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다고 말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국가예산수입은 107.5%로, 국가예산지출은 108.9%로 늘이며 그가운데서 경공업, 농업 등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다고 하면서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백히 제기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옹건 편성된 데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올해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사업보고와 주체99(201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0(201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전병호대위원의 직무변동과 관련하여 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박도춘대위원을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으로 리명수대위원이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병규대위원이 보선되었다.

리태남대위원을 신병관계로 내각부총리에서 해임하였다.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

7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에서 내각총리인 최영림대 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온것이다.

중요금속공장들의 주체철생산체계가 성과적으로 완성되고 새로운 합금강 생산기지가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금속공업의 부문구조가 새롭게 갖추어졌다.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이 최신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현대화됨으로써 주체 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는 대경사를 안아왔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능력이 늘어났으며 전력공업부문에서 수력발전소들이 완공되어 많은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되고 화천발전소건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척되어 2012년까지 완공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경공업발전과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것은 지난해 인민경제발전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해에 과학기술발전에서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CNC화가 힘있게 진척되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기술인 핵융합에 성공하여 세계를 경탄시켰으며 첨단기술제품들이 개발되고 생물공학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보고자는 올해에 내각이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며 경제전선전반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계속 강력히 밀고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내각은 올해를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는것과 함께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강력히 밀고나갈것이다.

내각에서는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농사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할것이다.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축산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축산물과 과일, 알곡생산을 다같이 늘여나가며 특히 올해에 과수업발전에서 변혁을 일으키도록 한다.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원양어업, 세소어업,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더 많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인민들에게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인민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도모하도록 한다.

내각은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적극 추동할것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는 한편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여나가도록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송변전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희천발전소건설에 계속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력생산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도록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철생산체계와 방법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의 중량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며 유색금속제품들을 보다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전망성있게 마련해나가도록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기계공장들의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발전설비와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전자공업부문에서 각종 전자요소와 전자제품생산을 늘이고 정보산업부문에서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

건설부문에서 흥남가스화대상, 단천항, 태권도성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완공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한다.

국토관리부문과 도시경영부문사업에서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가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도록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정보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내각은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하여 수출액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키도록 한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에서경제기술협조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것이다.

내각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물질적보장사업과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의 발전에도 계속 큰 힘을 넣을것이다.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올해 국가예산

7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에서 내각부총리 겸 재정상인 박수길대위원이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정형과 올해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예산수입은 101.3%로 넘쳐수행되고 국가예산지출은 99.9%로 집행되었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전해에 비하여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10.9%,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9.4%,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08%, 기본건설자금지출을 112.9%,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자금지출을 108.1%, 인민적시책자금지출을 106%로 늘이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다.

올해 국가예산은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경제건설 전반을 활성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나갈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하였다.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107.5%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예산수입총액에서 중앙예산수입은 83.9%, 지방예산수입은 16.1%를 차지하게 된다.

올해부터 국가예산에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국가예산수입총액의 78.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협동단체이익금은 103.8%,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은 101.4%, 부동산사용료수입은 100.7%, 사회보험료수입은 100.4% 늘이는것으로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108.9%로 늘어나게 되며 그 가운데서 경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12.9%로 늘이고 지방공업부문에 많은 자금을 돌린다.

국가예산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109%로 늘이고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주며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113.5%로 늘인다.

기본건설자금지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115.1%로 늘여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며 과학기술부문에서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공업부문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자금을 110.1%로 늘이게 된다.

문화건설부문과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에 많은 자금을 돌린다.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예견하였다.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준다.

보고자는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절약하고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임으로써 예산수입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1-06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4월
발행일	2011년 4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800-4300(대)